광주 첫 회전교차로…도심 4곳에 7월까지 설치

市, 11억원 들여…시범운용후 단계적 확대

동구 지산유원지 입구
남구 원제마을 3거리
북구 북광주 농협 앞
광산구 산정중 3거리

오는 7월 광주도심 4곳에 처음으로 회전교차로가 들어선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신호없이 일방통행하는 회전교차로는 기존 도로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고, 차량 흐름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는 7일 "오는 7월까지 11억원을 들여 동구 지산유원지 입구 3거리와 남구 원제마을 3거리, 북구 북광주 농협 앞 용전3거리, 광산구 산정동 산정중학교 3거리 등 4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364개가 설치됐으나, 광주에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는 5만여개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광주시는 회전교차로 설치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시범적으로 광주 도심 4곳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가도로 철거 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백운광장 등은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은 탓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행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 지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9~2010년 연평균 93건에서 2012년 47건으로 49.5% 감소했다. 또 통행속도는 20.3% 향상됐으며, 통행시간은 30.4% 감소하는 등 교통 흐름에도 큰 도움을 줬다. 특히 불필요한 신호 대기에 따른 연료소모, 대기오염 등을 줄여 경제적 효과는 물론 녹색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시스템인 만큼 회전교차로의 이용법을 사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는 회전교차로 운전요령이 운전면허시험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다.

회전교차로 운전요령 중 가장 기본은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인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차로 내에 주행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진입해선 안 된다. 회전하는 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서행으로 진입하는 해야 하며,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통행해야 한다. 회전차로 내부에 주행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양보선에 대기했다가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진입해야 한다.

김영수 광주시 교통시설담당은 "광주 도심 곳곳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면 일반교차로에 비해 사고위험은 물론 교차로 지체시간도 줄어드는 등 차량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는 구 도청 앞 분수대에 회전교차로와 유사한 로터리 방식의 교차로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시작과 함께 폐쇄됐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창조적 행복복지'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광주도시공사의 시민들을 위한 '창조적 행복복지' 프로그램이 또 한번 최고의 공익 정책임을 인정받았다.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사진 가운데)는 최근 한국디지털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공사의 '창조적 행복복지' 프로그램은 지난해 광주·전남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는 "광주도시공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실현에 기여한 공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CSR 고유 브랜드인 '창조적 행복복지'를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행복복지는 5대 전략과 20대 핵심과제, 65개 실천계획을 수립해 광주시민이기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7개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노인일자리 창출 ▲근로장학생·고졸 기능인재·다문화가정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고, 또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 ▲노인 치아검진 ▲치매예방교육 ▲저소득층 장례비용 인하 협약체결 ▲독거노인 돌봄 도우미제 운영 ▲무료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풍요로운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어린이 글짓기대회 개최, 어르신 국악제 관람, 무료 스케이트 강습, 문화 및 이·미용 바우처 시행, 작은 도서관운영,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했다.

도시공사 홍기남 사장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추진한 창조적 행복복지를 각계, 각층에서 인정해줘 좋은 상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지원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하철 10년…"지하터널 함께 걸어요"

28일 개통 10주년
공사, 다양한 기념행사

광주지하철이 개통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펼친다.

오는 28일 지하철 개통 10년을 맞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해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하터널 걷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하터널 걷기' 체험행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닫혀있던 지하터널을 개통이후 처음으로 개방, 직접 걸으면서 터널구간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통 해에 태어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하철 체험 견학행사를 실시하며, 지하터널 걷기 및 견학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wangjusubway.co.kr) 또는 홍보교육팀(062-604-8101·2)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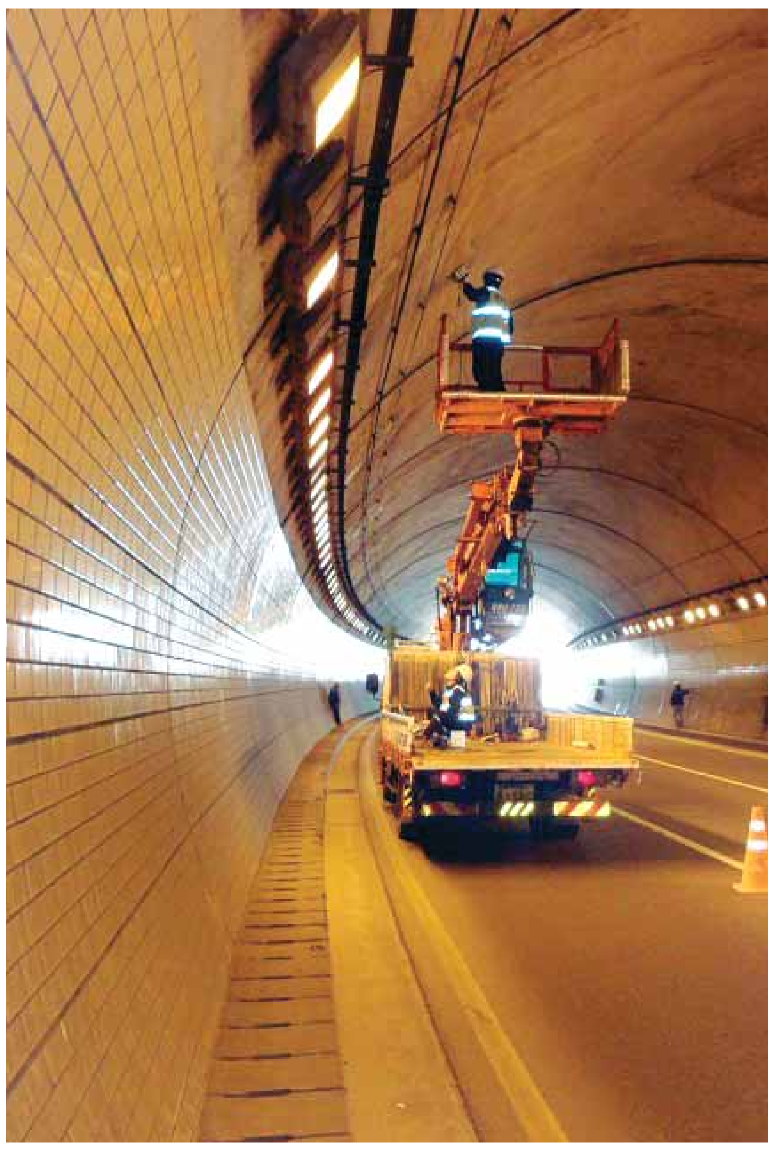
17일에는 롯데시네마 상무관에서 '다이버전트' 시사회를, 21일부터는 공사 블로그에서 개통 10주년 축하·응원 댓글을 접수하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따뜻한 가족이야기 및 사진 공모전을 열어 150만원 상당의 가족 사진 촬영권을 증정한다.

개통기념일 당일인 28일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단 선수의 재능나눔 이벤트를 시작으로 '지하철 4감 행복'의 메인 이벤트가 상무역에서 열린다.

지하철 이용 고객에게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는 '4·28 이벤트', '사진으로 보는 광주지하철 10주년展', 밸리댄스 공연 등의 문화행사가 연이어 펼쳐진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10년간 보내주신 고객 사랑에 감사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이 되도록 새로운 10년을 향한 제2의 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물 새는 곳 없나"…터널 안전진단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최근 서구 화정동 짚봉터널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9월까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서 결함이 발견된 송암고가교, 임동교, 두암교, 비아지하차도 등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한다. 〈광주시 제공〉

광주 공공도서관서 빌린책 어디서나 반납 가능

광주시립도서관은 7일부터 광주지역 시립과 구립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가까운 공공도서관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는 타관반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관반납서비스는 우선 시립·구립 공공도서관 14곳에서 먼저 실시하고,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통합도서서비스 운영이 안정되면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공공도서관은 타관반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시립과 구립 공공도서관 14곳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도서대출과 디지털자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 서비스를 구축했다. 지난 3월27일에는 CJ대한통운(주)와 타관 반납도서 배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희종기자 chae@

서부·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광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부·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은선)은 7일 서부도매시장 내 농수산물검사소 회의실에서 서부·각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및 각 법인체 대표 등 도매시장 유통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광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농수산물 검사소는 최근 일부 봄 채소류에서 허용량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는 등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소는 특히 농약 검출 농수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는 야간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 내 법인체들과 농약 사용 위험 농가 등의 정보를 사전 공개·제공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안전한 농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사소는 또 올해부터 그동안 간이 검사 위주였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최첨단 정밀 분석 장비 검사로 전환,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